본질흐린 페미니즘 영화 활개

학술특집

—영화속에 나타난 여성문제

상업주의, 여성운동조차 상품화 조장
제작주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필요

Ⅰ. 상품화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하면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듣기 힘들고 설사 설명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헛소리냐'하고 단번에 일축해버리도 그리 흐뭇이 되지 않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절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페미니즘'을 내걸면 그것은 소설이든 영화든 아니면 일반 광고에 이르기까지 틀림없이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페미니즘'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흠'이 되고 '페미니스트'로 자처하는 것이 신사다운 남성임을 보증하는 하나의 상표처럼 되었다. 가히 페미니즘의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두고 희희낙락할 수만 없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어 왔던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성의 '성' 자체가 상품화된 것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그 상품화에 반대의 기치를 내거는 페미니즘' 조차 상업주의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명백한 징후 때문이다. 하다 못해 전통적 가치관인 '효'나 '부덕(婦德)'까지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영낙없이 포장된 상품으로 만들어 거리는 시장경제의 축수(祝壽)를 전에 모방송국에서 개최했던 '으뜸주부 경선대회'를 상기해보라)로부터 '페미니즘'만이 유독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지 모른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런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쩌면 여성문제가 선전되고 토론의 제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로 선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하지만 어쩌든 '페미니즘'의 선전문구를 요란히 동반했던 이 영화는 영화평단 내부와 여성계 쪽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보기드문 현란한 형식과 굳이 이미 이상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신세대의 결혼과 일', '창작과 비평'1993 봄호) 많은 여성들이 신세적인 제약 때문에 일을 갖고 싶어도 집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에 매다릴 수 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비웃듯,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가정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일로 흥기분하게 살아가는 여주인공에 대한 비화는 이 영화를 본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화려한 색깔로 표사되는 일을 할 때의 여주인공과 흑백필름의 칙칙한 색깔로 그려지는 기정에서의 백빠진 여주인공의 모습은 이 양자에 대한 감독의 매우 의도적인 가치평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성들이여, 별볼일없는 가정을 버리고 자신만의 일을 가져라"라는 메시지 자체는 분명 가슴 설레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인 삶을 사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정말 보고자 원했던 것은 일과 결혼생활이라는 양자 사이의 괴리를 최소한 현실적으로 드러내보여 주면서 가능하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전망이 가능할지에 대한 통찰력이 아니었을까.

그에 비해 작년에 개봉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결혼이야기'(김의석 감독)는 비록 그 상업주의적 편향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긴 했었지만, 오히려 결혼생활의 한 단면에 대한 일정정도의 전술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최민수와 심혜진 커플이 연출해 내는 화이트 칼라 맞벌이 부부의 결혼생활을 코미터치로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그대 안의 블루'처럼 영상언어에 그다지 신경을 쓴 작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성문제에 대한 감독의 공허한 주장이 강변되고 있지도 않다. 적당한 웃음과 더불어 요즘 신세대의 결혼생활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을 그럴듯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문제로 인한 갈등의 묘사는 단순한 코미터치를 벗어나 상당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관객은 이 작품에서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감명을 얻지야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번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 바로 이런 점에서 '결혼이야기'가 얻은 인기를 단순히 '상업주의적 재미'로만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지면관계상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해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강간당한 여성이 현실과 법정에서 겪게되는 문제들을 참으로 진지하게 보여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김유진 감독)같은 작품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볼 때도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는 작품이지만 굳이 그리한 시각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인간의 문제를 다룬 그냥 한편의 영화로서도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문제는 이런 영화가 '그대 안의 블루'나 '결혼이야기'같은 '화려'하거나 코미터지 위주의 영화에 비해 여성문제에 대한 훨씬 진지한 접근자세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못미치는 주목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 이유를 꼼꼼히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려는 작가와 비평가의 시급한 일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영화들의 대중적 성공을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페미니즘 작품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자의 안이한 주제 해석이 상업적 페미니즘으로 변모시켜

Ⅱ. 영화와 페미니즘

영화쪽에서 보면 최근에 개봉된 영화도 '페미니즘'의 기치를 등당히 내세운(아마도 우리 영화사상 최초의 일일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작품이 있었다. '그대 안의 블루'(이현승 감독)라는 이 영화는 흥행에도 일단 성공했지만 그보다도 이 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설전으로 한층 더 유명해졌다. 감독 자신 '페미니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성에 관한 한 대단히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와 일과 사랑(결혼) 둘 다 잘해보려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평단 쪽에서는 대체로 이 작품의 형식적 배려에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작품의 골간이 되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나 주제의식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여성계쪽에서는 이 영화의 내용과 여성상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작품을 두고 형식적으로도 탁월하고 페미니즘적 내용도 뛰어나다는 이례적인 평가도 있었다.

필자로서는 형식과 내용은 하나의 작품에서 별개로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작품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로 선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하지만 어쩌든 '페미니즘'의 선전문구를 요란히 동반했던 이 영화는 영화평단 내부와 여성계 쪽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보기드문 현란한 형식과 굳이 양자의 긴밀한 관계가 검토되어야 작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에서 얼핏 참신하게 보이는 이 영화의 형식이 정작 여성의 일과 결혼이라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핵심문제에 대한 안이한 발상으로 딸미암아 실험적 의

우주기원의 정설, 대폭발

학술보고

빅뱅이론의 연구발전과정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주의 종말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중의 하나일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서서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은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물음이 종교와 철학의 영역에서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일반상대론은 우주가 항상 팽창이나 수축을 하는 동적인 상태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지만 아인슈타인 본인은 물론 당시 대부분 과학자들은 우주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안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은 스펙트럼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 모든 천체들이 서로 멀어져간다는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으며 이때부터 우주론의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일반상대론의 중력방정식은 세가지 가능성 즉,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열린 우주, 팽창은 계속하되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평평한 우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팽창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되는 닫힌 우주를 보여준다. 현재 관측사실로는 어느 경우일지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주전체의 평균밀도가 위 선을 넘어야는지, 우주에는 직접 관측되는 물질이외에 암흑물질이라는 관측이 어려운 물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밀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우주의 탄생은 어떠했을까? 1948년 가모프가 제시한 대폭발(Big Bang)이론은 우주의 과거는 매우 압축되고 뜨거운 상태였을 것이며 우주의 탄생은 이런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팽창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허블의 우주팽창과도 무관하지 않은 빅뱅이론은 그후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1964년 전파천문학을 이용하여 현재 우주의 평균온도가 섭씨 -270.3도라는 중요한 증거를 밝히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우주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소인 수소와 헬륨의 존재비도 설명할 수 있었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천체들은 태초에 있었던 폭발의 찌꺼기인 셈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몇가지 관측사실 즉, 왜 우주밀도가(암흑물질을 고려하더라도)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의 경계값에 매우 가까우며 왜 우주가 태초에 모든 방향에서 팽창을 동시에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을 각각 평탄성(flatness)과 지평선(horizon)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빅뱅이론은 팽창(inflation)이론 및 혼돈팽창(chaotic inflation)이론 등에 의해서 수정을 받게 된다. 이 이론들은 우주는 태초직후 아주 짧은 시간동안 엄청난 급팽창을 겪었음을 시사한다.

현재는 위와 같은 놀라운 우주관의 과학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궁극적인 의문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자면 우주에 왜 시작이 있었는가 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이 있다. 기존 우주론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우주탄생후 10^{-43}초 후부터이며 정작 태초 그 순간에 대해서는 별 정보를 주지 못한다. 장래를 극복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같은 이는 태초에는 시간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탄생이후에야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있음을 제안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아무것도 없는 無에서의 양자적인 요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론·이후 모든 이론들의 한계는 불행히도 관측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우주론과 고에너지물리학분야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 논리적인 추정과 이론만으로는 기존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주에 관한 많은 신화를 과학적으로 탈바꿈시킨 빅뱅이론이 현재의 그러한 형이상학적 요소에 여전히 의존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사실이다.

이 동 훈
〈자연대교수·우주과학〉

측정된 우주평균온도 신빙성 더해
인플레이션론 이후 이론 실험적 확인 불가

누구보다 당당해질 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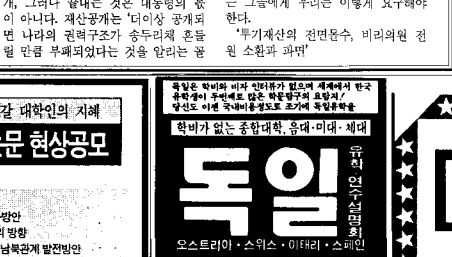
藏時鐘

개혁을 위해 추진한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무혈혁명'이라는 평가답게 권력의 핵심부를 강타했다. 이 재산공개의 태풍은 김영삼 정권이 예측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권력의 근본적 기반이 무너져 내릴 정도가 되자 정권은 황급한 마무리 맺기 작업에 분주하다. 이 상태로 계속 권력의 기면뷔기를 계속하다보면 현 권력은 결코 진실된 의미의 개혁을 이룰 수 없는 점단이라는 본질이 드러날 것을 극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공개 파동은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김영삼 정권의 외지가 적인 체 '부분적인' 개량의 길로 들어선 첫 관문이 돼버렸다.

또한 현재의 파동이 이정도에서 끝난다면, 정권은 재산공개를 통해 몇명의 공직자를 추방해 더이상 자신들을 개혁해야 할 부패의 온상이 아니라, 부패를 일소할 개혁의 주체라는 '면죄부'를 발부받는 꼴이 돼버린다.

장관 몇 명, 의원 몇 명, 차관 등 고위직 몇 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대다수의 현재 권력층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제 희생양을 통해 얻은 면죄부를 통해 자신있고, 당당하게(?) 김영삼 대통령을 앞장세워 신한국 건설이라는 힘찬 개혁의 방걸음을 디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힘찬 전진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부패한 자가 부패한 자를 죽여 얻은 '면죄부'를 목에 걸고 당당히 고통분담을 외치며



노동자의 목을 조여오는데도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허울좋은 '산업역군'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한 재산공개, 그러나 끝내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 재산공개는 '더이상 공개되면 나라의 권력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꼴이니 제발 더이상은…'하며 애걸하는 정권을 위한 것도, '이제 비리공직자는 추방했으니, 우리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설득력이 없소. 이젠 개혁의 칼날을 받으시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그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이제 재산공개라는 악몽을 끝내고 싶어할 것이지만, 개혁은 이제부터다. 김영삼 대통령이 소리높여 외친 한국병은 몇몇 개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금력으로 뭉친 권력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젠 저들의 치부를 보면서 감탄사를 터트릴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지난 목요일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는 '투기재산의 전면몰수와 비리의원 전원 소환 파면을 위한 전국학생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가 열렸다. 무척이나 긴 이름의 이 비대위는 재산공개를 통한 개혁의 길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면죄부를 발고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투기재산의 전면몰수, 비리의원 전원 소환과 파면'

제12회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대학인의 지혜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논 제
-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 남북사회·문화의 동질성 회복방안
-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위 논제중 택1

대 상 대학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시 상
- 최우수작 1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100만원
- 우 수 작 2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각 50만원
- 가 작 5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각 30만원

※특전 : 입상자 전원 사회주의권 국가 견학기회 부여('93. 12월중)

마 감 1993년 9월 15일

분 량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내외 (단, 5매 내외의 내용요약 첨부)

발 표 1993년 10월중(개별통지)

보낼곳 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종로77. 정부종합청사)

기 타
- 재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성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 논문제출시 제학증명서 1부 첨부
- 성세한 내용은 통일원(☎02-738-7522, 725-3945)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에 문의

통 일 원

독일은 학비와 비자 인터뷰가 없으며 세계에서 한국 유학생이 우먼세로 많은 학문탐구의 요람지! 당신도 이젠 국내비용정도로 조기에 독일유학을

학비가 없는 종합대학, 음대·미대·체대

독일 유학 음악 미술 연수 설명회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이태리 · 스페인

방학 어학 음악 미술 연수
200개 분교와 대학으로 연수주선
※독일대학연수는 4월까지 접수
설명회 : 4월24일, 5월 8일 오후 3시

Wien SALZBURG 여름방학 연수

인링구아는 세계25개국에 2400개의 분교를 둔 세계최대규모의 외국어전문교육 기관임
매월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없이는 독일 유학이 불가능함.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문법·독해·ET반·유학반·독작

이태리어 회화 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인링구아 서울 분교
종로 733-3804, 722-7368
관철동 19-19 시온빌딩 (종로서적위 세번째 골목)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빛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EST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 · S.L.E코오스 (각반 12명 정원 / 강사전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 완성) 미국생활영어 · 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 LADO회화
NGLISH청작, TIME·영어순해(독해) · TOEFL · 종합영어 · 고득점 TOEFL종합반 · GRE · GMAT · 문법 · 영어실력기초 VOCABULARY · AFKN청취 · TOEFL L/C · 우먼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 · 프준일본어 · NHK일본어청취 · 러시아어 · 러시아만회화 프랑스어회화 · 독일어 · 중국어 · 중국어회화 · 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 훈련된 최신어학 교수법 · 외국식 학습분위기 · 최신시설 · 전월관방금 · 수료증취득, 과학적이고 성일보시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 TOEFL없이 입학가능한 WISCOSIN주립대학PROGRAM개설

자비유학 준비반(1일 6시간)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환빌딩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끝 환빌딩 515-4020

I CAN DO 파고다 외국어 학원

제1회 필립스 대학생 영어 에세이 현상공모

1891년 설립된 필립스는 전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전자회사로서 산업 전자기기, 의료장비, 통신장비, 오디오, 비디오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과 디지탈 컴팩트 카셋트(DCC), 고화질 TV (HDTV), CD-I, Photo CD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로 소비자의 만족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립스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온 필립스 산업 코리아가 제1회 대학생 영어 에세이현상공모를 실시하오니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대상 - 서울지역 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2. 응모마감 - 1993년 5월 31일
3. 응모주제 - 21세기의 이상적인 직장 혹은 작업환경 (Ideal workplace of the 21st century)
4. 응모요령 - A4용지 더블스페이스 10매 내외(워드프로세스 가능)
5. 시상내역
   - 대 상 1편 : 상패 및 필립스 본사 견학 (네덜란드)
   - 우수상 1편 : 상패 및 필립스 본사 견학 (네덜란드)
   - 장려상 2편 : 필립스 오디오
   - 가 작 6편 : 필립스 면도기
6. 심사 - 1차심사 : 전체 응모작품중 20편 선정
   - 2차심사 : 1차 예심통과 작품중 입상작선정
7. 발표 - 1993년 6월 중순 응모자에게 개별통지
   - 일간스포츠 6월 15일자 게재
8. 계획 - 일시 : 1993년 5월 31일 까지(우편 발송시는 당일 소인분 유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0-18 삼아빌딩 6층 IM Communications 135-100 (Tel 540-2373)
9. 기타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사 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 혹은 편지지는 사용치 말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홍보기획사 IM Communications로 문의바람
   - 제출시 원고상단에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명기

PHILIPS